

2011 VOL. 11

민·음·과·평·화·의·공·동·체

# 희년 동산



그가 나를 푸른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시편 23:2)



한국기독교장로회  
희년교회



## 이산(離散)

노란 꽃잎 다 진 자리에  
뽀~얀 솜사탕 하나가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람 불면 어디론가  
말없이 훌~쩍 떠나갈 듯  
채비를 다 마친 모양입니다.

신재영 집사 사진 위에 정수만 집사 글 입히다.

2011 VOL. **11**

HEENYUN PRESBYTERIAN CHURCH **희년동산**

영상 에세이

포토 스토리

말씀   주님을 닮아가기	06
칼럼   바이블 사이언스 (1)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10
특강   내 안의 혁명 (1)	15
특별기고   청년애! 삶이 아플수록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어라!	21
QT   크리스천 리더십 (3) 모세의 당부	27

## 사역 MINISTRY

2011년도 회년교회 각 팀의 사업목표와 운영방향	29
회년 80년사	34
사역   유치부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37
초등부 회년교회 초등부는요..	42
중고등부 회년동산의 미래 주인공인 중고등부를 소개합니다.	45
열혈 청년부!! 회년교회 청년부	49
전도폭발   열매의 감사	55
산행   새 봄, 첫 나들이	58
찬양   감사의 비밀.. <아델포스>	61
봉사   봉사의 손길	64



운장산에서 - 집사 신재영

여신도회   제주도 여행 course	67
문화센터   기타는 내 친구	75

## 간증 TESTIMONY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77
알파.. 사랑해요	81
알파코스를 마치며	85
복讎 땅에도 교회가 있을까?	88
육체는 영혼이 잠깐 머물다가는 순간의 집 일 뿐...	93
주님은 나의 노래 나의 전부	99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105

## 토픽 TOPIC

항주에서 소주 오는 길에	108
사랑하는 나의딸 민영에게	112
잠 잘 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115
돌체 주까 (Dolce Zucca)	118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0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	124
내 마음의 리모델링	129
성경만화	133
편집후기	135



# 알파 6기 성령수양회 Photo Story



똑소리 입은지집사님 유머가 짝이네요



성령수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살빼야지!



조별 잔치의 킹(퀸)카는 누구일까?



아름다운 하모니와  
은혜스러운 치유의 시간.....



세족식...

깊은 마음속까지 씻기움 받았답니다^^



작은 은혜의 불꽃들이 모여 6기 성령의 불기둥을 만든  
게스트, 헬퍼님들! 화이팅!!!





## 주님을 닮아가기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제가 흠모하던 교수님 한 분은 천정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회중의 눈과 마주 보며 설교하라 (eye contact)"는 현대 설교학의 원론에도 맞지 않는 그 분의 설교 태도를 보면서 의아해 하던 어느 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교수님 또한 "존경하던 은사가 천정을 보며 설교하다보니 자신도 그 습관을 따라하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그 분만이 아닙니다. 이제 저 또한 사역이 깊어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은 모방의 연속이라" 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다보면 그 아버지의 습관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이란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다보면 "그 어머니를 꼭 닮은 딸의 모습" 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결혼할 때 "신부를 보기 전에 장모를 먼저보라" 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군가를 닮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기도 하고, 때론 부정적인 결과도 생겨납니다. 그러다보니 삶의 롤 모델을 정하여 그 분의 모습을 흉내 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일까요? 인생에 닮아가야 하는 원형이 있다면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회년교회의 사역 목표를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교회" 로 정한 것입니다. 그 분의 인격을 닮고, 그 분의 사역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라고 원하시던 사역을 모방하면서 그 분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그 분이 꿈꾸시던 주의 나라를 이뤄가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분이 이루시던 사역, 나아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 9:35절에 나오는 주님의 사역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3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역으로 말하면 교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힘써 전도하는 일이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 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치유하며 회복하신 사역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야말로 오늘의 교회들이 힘써 증거 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 회년교회는 존재한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 최선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과 예식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지요.

<알과 사역>은 단순한 교회 사역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접과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입니다. 후반기에 힘쓸 <전도 폭발>도 그런 주님의 사역에 충실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에 전심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시간 시간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인수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나 금요 은사 집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치유사역에 힘쓰는 일들은 미룰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정태기 교수 초청 <치유사역을 위한 영성집회>는 바로 이 시대의 가정과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는 선교의 최전선에 두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사만 파송하는 것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전심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의 주체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희년 몽골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금년 여름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일, 그리고 이름 없이 교회를 세워가려는 주의 백성들의 열망이 아름답게 증거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하는 일은 희년교회의 큰 사역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청년 사역과 공석중인 아동부 사역을 담당하실 전문 사역자를 초빙하게 됩니다. 힘써 이 땅의 자녀들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희년교회가 힘써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일 대 일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사역들이 활발하게 증거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역을 닦아가는 희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담임목회자로 마음 깊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혹시 '겉모양만 흉내 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늘 기도하며 진실로 주님을 닦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조수를 불러다 일을 맡겼습니다. 말굽 (편자) 모형을 하나 주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조수는 주인의 명령대로 말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크기가 비슷하지만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처음 것과 엉뚱하게 달랐습니다. 주고 간 말굽과 똑같이 만들라고 했는데 어찌 된 것이냐고 주인은 심하게 추궁했습니다.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말굽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의 경위가 이러했습니다.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모형을 보고서 말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것을 만들 때는 주인이 남겨놓은 모형을 보고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에 만든 말굽을 모형으로 삼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100개째 되는 말굽이 만들어졌을 때는 주인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을 닦아간다.' 하면서 '흉내만 내고 겉모양만 닦아가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적인 성공 가치에 두지 말고 영혼구원과 예수님 닦은 삶에 두어야겠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관심과 목표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의상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운동하는 것마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천국으로 이민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를 예비 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닦은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영혼구원에 맞추어 유익하도록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매가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전 11:1)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을 닦아가는 교회로 힘써 나아갈 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온 교회위에, 주의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증거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세기 1장 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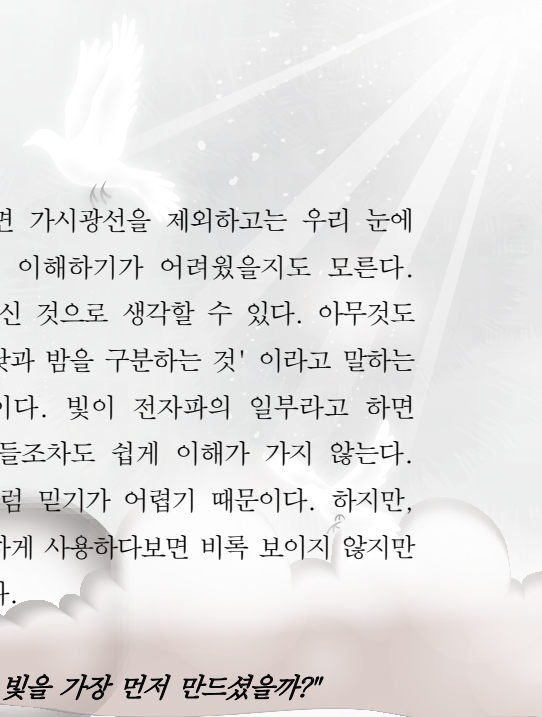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빛을 만드셨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가축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주운행의 질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빛이 단순히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중에서 으뜸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면(창 1:26-28) '우리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빛을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적어도 5일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어둠속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우주만물의 원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들을 순서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빛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제일

먼저 창조되었는지 몇 가지 알려진 과학지식을 동원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창세기에서 나온 것처럼 낮과 밤을 구분해주는 햇빛이다. 그리고 이 빛의 역할은 광합성을 통해 식물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지구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시켜줌으로써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첫날에 단순히 위에 설명된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빛을 만드시진 않았을 것이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도구를 개발할 때는 그 활용성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 없이 빛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될 뿐 만 아니라, 엑스레이(X-ray)나 MRI로 건강검진을 하거나,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할 때, 라디오, TV,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도 사용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활용도가 크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그 활용도가 제약을 받을 따름이다.

빛의 본질은 전자파이며 낮과 밤을 구분 짓는 빛은 여러 전자파 중 한 종류에 해당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자어로 '가능할 可', '볼 視'에서 나온 말이다. 즉,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무지개 색을 비롯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색들은 가시광선이기에 볼 수 있고 반면에 엑스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파들은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이러한 전자파들이 존재함을 밝혔고, 우리는 그것을 많은 곳에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파는 흔히 파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파도는 거친 파도와 잔잔한 파도가 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X-ray)는 거친 파도에 해당되고 라디오파 같은 것은 잔잔한 파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친 파도가 부두의 시설물을 파괴하듯 필요이상의 엑스레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한다. 하지만 라디오파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쬔어도 세포가 파괴되지 않는다. 라디오를 아무리 가깝게 놓고 많이 들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이유이다. 파도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듯 전자파도 그렇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자파를 보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초단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방사선, 그리고 우주선등 이 있다.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빛(가시광선)은 우리인간이 태초부터 이용해 왔지만, 다른 종류의 빛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빛을 만드셔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숨겨놓으셨고 우리 인간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이런 저런 빛을 발견해서 이용해왔다. 하지만 빛이 나오는 원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예수님 탄생 후 거의 이 천년이 지난 후이다. 영국의 과학자 톰슨은 1897년에 원자 안에 전자라는 작은 입자가 존재함을 알았고 그것의 이동에 의해서 빛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나타난 후부터 전자를 발견할 때까지 이 세상에 살다간 사람들을 헤아려본다면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지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숨겨놓으신 보물 하나 찾는 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들어 주신 빛은 단순히 밤낮을 구분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빛이 아니고, 장차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빛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지만, 빛을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가시광선을 제외하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둠을 가르는 빛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에게 빛을 설명할 때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빛이 전자파의 일부라고 하면 첨단과학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좀처럼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파를 이용한 여러 기기들을 편리하게 사용하다보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인 빛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써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하자. 인간의 생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에너지원인 먹을거리를 들 수 있다. 그 먹을거리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식물과 동물이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살펴보면 제일 아래쪽에는 식물이 존재하고 그 위에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들은 녹색 식물의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진 유기물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녹색 식물들은 유기물, 즉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 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봄에는 싹을 내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며 가을에는 열매나 뿌리로 저장을 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한다. 그런 후 다시 봄이 되면 어김없이 계절을 알아차리고 새순을 드러낸다. 동물과 달리 의식이 없는 식물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식물 안에 빛에 의해 작동되는 생체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체시계에 있어서 빛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벽시계나 손목시계의 건전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빛이 하루 이틀 늦게 나온다면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먹이사슬의 최말단에 있는 식물들은 빛을 받는 순간, 즉, 빠르게는 1초의 10조분의 1이 되는 시간( $10^{-14}$ 초, 펨토초)안에 생명활동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루 이틀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잠시라도 굶주리지 않도록 미리 미리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이다.

우주의 섭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기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명체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빛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여러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초부터 영겁까지 모든 과정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과학이라는 도구로 평가해보려는 우리 인간들의 시도가 가당찮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 내 안의 혁명

### 글을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외형적인 모습을 지탱해주고 있는 육체와 내형적인 모습을 지탱해주고 있는 마음이 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이어 받아 태어나고 자라서 세월과 함께 노쇠하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생명공학이 발달되어 인간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고 노화를 지연할 수는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 세계 최고령 남성이자 두 번째 고령자인 미국 윌터 브로이닝이 향년 1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브로이닝은 세계 최고령자인 미국 조지아주(州) 베시 쿠퍼 할머니보다 26일 더 어리다. 브로이닝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일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만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며 죽음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전했다고 한다.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해 주셨다. 구약시대에 정해 주신 인간 수명이 21세기 최첨단 생명공학기술로 예측하는 인간 최고 수명과 일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120세를 살다 죽든 그보다 일찍 죽든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런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많다. 다윗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워야 함은 매우 현명하고 당연한 것이다.

### 1. 내 영혼을 소생시킴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로부터 사울을 이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후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순간과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그는 기름부음 받음으로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 되어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늘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의 시선이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3-4)

21세기는 내안의 혁명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기술혁명, 정보혁명 시대를 지나 내안의 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는 혁명적인 흐름(물결)을 타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것이라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내안의 혁명을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제5의 물결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안의 혁명을 어떻게 이루느냐와 이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몸과 마음의 혁명은 내안의 혁명 중 육적인 혁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이다. 미래학자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 어떤 혁명보다도 더 크고 필요한 내안의 혁명을 바로 영적인 혁명으로 보기 시작했다.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영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영혼이 소생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범사가 잘됨을 알고 있었다.

우리 신앙인은 비신앙인에 비하여 영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잘 되게 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영혼은 우리의 몸과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늘 습관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내 영혼의 소생을 날마다 구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케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 고백하게 하셨다.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의 영적상태는 어떠한가?

내안의 혁명 즉, 영적혁명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 학교수업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에 교회와 교회학교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영적인 혁명은 우리 자녀들이 리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지을 것이다.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등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안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혁명은 영적인 혁명임이 분명하다. 올바른 영적혁명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듯이 올바르지 못한 악령에 의한 혁명은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2.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맞보았다. 옛새 동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고, 칠일 째 되는 날은 일곱 번을 돌았다. 일곱 번째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외쳤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철벽이 있을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의 장벽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옛 세 동안의 침묵의 기도와 행진, 칠일 째에 일곱 번의 시도 그리고 외침이 있을 후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성취되었다. 그 끝이 안 보이는 성을 돌면서 침묵의 기도와 순종,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고, 단 한 번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영적인 혁명을 이루지 않고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지칠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했었고 40년간 시종으로 섬겼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셨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 종의 마음의 소유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쓰셨다. 종의 마음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종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고, 쉬운 방법으로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에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죄와 시험에 대하여는 단호하셨고 죄인에 대하여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셨다. 또한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맘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 이루셨고, 필요할 때 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적혁명을 이룬 분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주문하셨다. 선생의 섬기는 자세는 섬기는 종의 모습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말씀에 의지하여야 가능하다. 종의 모습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직장상사에게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신앙적으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란 쉽지 않다. 그런 속성을 우리 주님은 간파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솔선수범 하셨다. 섬기는 종의 모습은 사랑하고 용서하는데서 나타난다. 서로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안의 혁명을 이룰 수 없다. 내안의 혁명이 없이는 21세기를 능력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안에서 영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 글을 맺으며

톨스토이가 인류에게 전하는 교훈서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육적인 영생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와 교만에 싸여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죄용서와 함께 영혼이 구원함 받았음은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있으므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음은 감사한 일이다. 이제 이런 사랑과 은혜와 함께 영혼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 되어야 한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홀려넘침으로 인해 우리와 이웃의 영혼이 소생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안의 혁명, 즉 영적혁명을 이룸으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청년아! 삶이 아플수록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어라!

한센씨 환자는 통증을 모른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작은 가시만 찔려도 큰 고통을 느낀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고,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나 괴로움도 이와 같다. 청년기에 겪는 갈등과 고통은 청년을 아픈 만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과 축복의 선물보자기와 같은 것이다.

- 필자의 치유시집 <물음표와 느낌표: 고통>에서-

TV 오락프로그램은 늘 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의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겉모습은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울고 있을 때가 다반사다. 그런데 인생에서 감정의 기복의 가장 큰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아주 작은 미소 하나에도 천하를 얻은 듯 환희에 환호하다가도 사소한 싫은 말 한마디에도 극도의 좌절을 겪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숨 돌릴 틈도 없는 획일화된 일상의 압박, 설 새 없이 이어지는 관계의 갈등,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의 분출,



갈등,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의 분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청소년과 청년이 겪는 이런 고통들은, 성인들이 겪는 주가 폭락, 경제 대란, IMF보다 더 혹독한 시련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청년들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청소년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실 청소년의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성정은 청년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자신들도 다 그런 시기를 살았으면서도, 청소년들은 언제나 철부지 소년 소녀로만 취급하고 쉽게 방심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은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직면하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다 자칫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 일탈된 길을 가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고통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고, 특정인만 느끼는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난이나 고통은 특별히 불행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재앙이나 저주 같은 것이 아니다. 비록 정도와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도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며, 성숙하고 복된 삶을 위한 의무와 특권과 같은 것이다. 오로지 고통이 없는 완전한 곳은 죽음과 묘지뿐이다.

새벽이슬처럼 맑고 고운 이 땅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떼거리로 모여든다 해도, 고통이 있는 순간, 인생은 절망이

확실한 증거이다. 고통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최고의 훈련교사이다.

질그릇과 도자기의 차이는 효용성과 값으로 환산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고온에서 견뎌낸 연단의 과정"이 그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숯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똑같은 탄소 원소이지만 실온에서 아무런 압력도 받지 않고 불에 타버리면 숯이 되지만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된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통과 고난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그것을 알고 참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값비싼 고귀한 축복의 선물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고통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축복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 마련이다. 이때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면 비행과 범죄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참아내고 그 기회를 축복과 연단의 호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꿈이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고, 비전이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는 신념과 가치이며 미래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려는 강렬한 열정과 신념이 있으면, 사소한 어떤 유혹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바라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열악한 환경조건이나 고통과 고난은 오히려 더 강한 의지와 힘을 길러준다.

울릉도 도동항 앞 바위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나무가 있다. 흙도 없는 갈라진 바위 틈에서 비바람 태풍을 이기며 2500년을 버티고 지금도 살아 있다. 식물학자들은 이 향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생존의 비결이 바로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의 꿈과 비전도 바로 이런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참아낼 수 있다.

미식축구로 명성을 날리는 최고의 스타 조니유티타스는 경험 부족과 미숙하다는 이유로 많은 팀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더 열심히 연습해서 볼티모어 콜티스 팀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세기의 코미디언 로지 오도넬은 한 방송국 면접에서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하면서 거절을 당했다. "당신은 뚱뚱하고 거칠고 못생겨서 배우로 성공하기는 틀렸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성공할 수가 없다" 얼마나 비수 같은 아픈 고통의 칼날인가? 그러나 그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위해 꿈과 비전을 품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크게 성공한 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꿈이 나를 구해주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는 꿈에 대한 믿음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이것은 성공한 어느 스포츠 스타나 코미디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려는 부단한 인내와 노력,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청소년 청년은 꿈과 비전이 있는 청년이다. 훗날 그 꿈이 그를 위대한 꿈의 주인공으로 키워줄 것이다.

청소년아! 청년아! 오늘 만일 너의 삶이 아프다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어라! 그 꿈이 너희를 너희가 꿈 그 꿈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원리이고 은혜의 선물이다.



## 모세의 당부

(민수기 13장 1절~33절)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까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일까요? 시대에 따라 때론 환경에 따라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리더의 필수적이며 공통적인 자질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성? 성실성? 포용성? 추진력? 통찰력? 결단력? 기획력?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셨을까요?

-湖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굽을 떠나 장장 40년이라는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산천을 울립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사람씩 보내라."

이에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내면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이릅니다.

"너희는 네겟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듯 모세는 그들 정탐꾼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담대하라."

하지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담대히 입을 엽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능히 승리를 안겨 주실 거라는 한마디 말 속에서 이미 젖과 꿀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QT. 그렇다면 담대함은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 사역 MINISTRY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

그에게 그 한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마 25:15~28)

## 2011년도 회년교회 각 팀의 사업목표와 운영방향

회년교회의 비전을 굳건히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팀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계획이 관건이 된다고 보고 출판팀에서는 우리 교회의 각 팀에 대한 사역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팀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사업목표

- 주님의 사역을 닦아가는 교회

### □ 운영방향

-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육에 힘쓰는 일
- 복음전파
- 치유와 회복에 힘쓰는 일

### □ 실천계획

- 알파사역과 전도폭발에 힘쓰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
-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대기 교수를 초청하여 "치유와 사역을 위한 영성 집회" 를 통해 회년의 성도들을 위한 영성집회를 계획 중
-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회년몽골교회설립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추진 중
-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교회에 청년 및 아동사역을 위한 전문사역자가 없어 이들을 초빙하려고 하며 이외에 일대일 제자 훈련 사업을 계획 중

### 1) 전도부(오석홍 장로님)

#### □ 사업목표

- 영혼구원과 영혼 소생

#### □ 팀의 운영방향

- 전도훈련원과 새가족 훈련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구원하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
- 새신자와 기존신자의 영혼소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함

#### □ 실천계획

- 전도훈련원 : 전도폭발과 알파사역이 중점 활동이 되어야 하며 특히 알파사역의 주된 행사는 '새생명축제'임. 새생명축제는 오전에는 총동원 축제로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희년문화의 밤' 으로 전교인이 참여하는 행사임
- 새가족훈련원 : 새신자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하여 희년의 부흥을 담당

### 2) 목양부(윤호숙 장로님)

#### □ 사업목표

- 희년공동체 성도들의 영적상태를 살피고 교회의 사명 자체를 돌보고 섬김으로서 사랑을 실천 한다

#### □ 팀의 운영

- 병원심방 :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문병하며 예배와 위로
- 초원지기들이 각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의 사역활동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 각 초원의 목자 부목자들이 목장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원들을 살피고 섬길 수 있게 협력 강화
- 성경읽기와 쓰기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방향

#### □ 실천계획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목자 부목자 수련회 실시
- 연초와 연말 초원지기 수련회 2회 실시
- 수시 병원심방 및 예배로 성도 위문하기
- 구슬떼기 :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주 문제지출제와 채점하기
- 성경쓰기 : 각 가정에서 성경 쓰기와 매주 화요일 교회에 모여서 성경쓰기

### 3) 교육부(서인옥 장로님)

#### □ 사업목표

- 말씀중심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나가는 신앙인 육성

#### □ 팀의 운영방향

- 교사는 영적리더십으로 학생들을 자신 있게 신앙으로 이끌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함
- 학생들의 삶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경공부를 시도하고 학생들의 고민과 현재의 필요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함

#### □ 실천계획

- 수련회(여름, 겨울/중고등부 중심으로 제주도 계획 중)
- 교사기도회(연4회), 교사대학(연2회)
- 학부모교육모임(연2회), 학부모기도회(월1회)



- 청소년영어교육 사역 청소년 토요문화방

#### 4) 재정부 (정민생 장로님)

##### □ 사업목표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목회자는 편하게, 교인들은 만족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

##### □ 팀의 운영

- 교회비전과 성장을 위하여 각 사역활동의 조정 및 통합 역할
- 각 사역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보와 신속하고 자율적인 활동여건 제공
- 교회의 제반사항을 알리는 홍보업무와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 추진

##### □ 실천계획

- 사역 조직의 조정과 통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사역기반 조성
- 선교, 사회봉사, 장학 등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기금회계의 예산 편성 및 처리제도 마련
-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방문교인 증대)
-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 제작
- 교회 재산관리 (고정 및 유동자산의 조사와 대장 정비)

#### 5) 선교부 (김경중 장로님)

##### □ 사업목표

-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선교
  - \*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의 대상을 보고
  - \*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 \* 주님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 □ 팀의 운영

- 국내외 선교대상자 새롭게 재선정  
(국내외 선교지에 선교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 대상을 새롭게 재지정)
- 국내에 있는 몽골인 대상으로 몽골인을 위한 몽골교회 설립
- 자비량 단기 선교희망자 개발 육성
- 선교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사명고양
- 실천계획
  - 해외 선교사 파견원칙 마련
  - 해외 선교 운영세칙 마련
  - 국내외 선교기금 확대

#### 6) 봉사부 (정석곤 장로님)

##### □ 사업목표

- 봉사사역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한 세상 섬김과 봉사로 지역사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되도록 함

##### □ 팀의 운영방향

- 이웃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섬김
- 지역사회를 섬기는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우선으로 함

##### □ 실천계획

- 도농교류
- 식당봉사
- 사회봉사(가족결연, 반찬사역, 사랑의 식사)
- 기타봉사(봉사축제)



## 희년교회 80년사 발간의 신앙적 의미

장로 김 경 중 (역사편찬위원장)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2~13)

2011년은 희년교회가 창립 80년을 맞는 해이다. 그래서 희년교회 비전센터 3층 도서실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임정목 정석곤 서인옥 김기홍 윤효숙 장로님과 임봉환 유연초 유동진 안수집사님으로 구성된 9명의 역사 편집위원들은 끝도 시작도 없는, 오직 부단한 인내와 노력만이 요구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사료정리가 끝나면 교회의 중직을 맡아오시던 장로님과 유수창 팀장을 비롯한 장혜숙 조경옥 집사님 등 전문 필진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필자는 우리 희년교회의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왜 중요한 일인가? 그 의미를 새겨보고, 희년교회 성도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2:17)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 선조들의 역사도 바로 "믿음과 행함"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라 볼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와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근대

역사학의 확립자 랑케는 "역사란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역사적 사실들.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로체나 콜링우드 등은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인식론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카(E.H. Carr)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들과의 대등의 관계 중심의 역사관과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따라서 희년교회사를 발간하는 역사편집위원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집필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 첫째, 역사적 사실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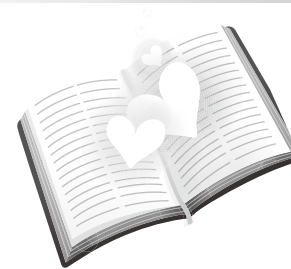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역사 기술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 인물들의 증언이나 기록 녹취록 등을 중심으로 그러한 내용의 객관적 사실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둘째, 기독교적 신앙의 원칙

인물과 그 인물의 행적에 대한 해석은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 의해 기술한다 하더라도 그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필 원칙은 오직 그 인물에 대한 자료나 해석은 오로지 그의 신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과 행함"에 초점을 맞춰 기록할 것이다.

### 셋째, 역사와 현재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원칙

이것은 어떤 인물과 인물의 행위가 역사적 사실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집사 정은숙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읽어주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 바로 성경입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가장 철저히 시키며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녀가 잠들 때도 동화책대신 성경을 읽어주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아직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유아기에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0세~7세 어린이들이 2층 유치부실에 함께 모여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꿈을 키워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동안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이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며 순간순간 많이 회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면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과거와 현재사이에 상호작용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이다. 회년교회가 아무리 방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기술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모든 기록들을 다 수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어차피 그 기록 들을 취사선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 인물과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원칙들이 집필과정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가의 문제는 위원들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사료수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임정목 장로님을 비롯하여 위원들의 헌신적인 열정은 언젠가는 그 결과로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교육학자로서 자녀교육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 을 가장 중요한 인간 발달의 과제로 삼고 있다. 정체성의 확립은 모든 인간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갖춰야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위해 자신의 역사를 알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년교회 80년사를 출판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노력이 될 것이다.



사모하는 만큼 아이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성경암송을 할 때도 엄마가 열심을 낸 아이들은 길고 긴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는구나... 싶은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 제 자신도 많이 반성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보다 영어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신앙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신앙의 평생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야 말로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조건 없이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고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건물이나 기둥이 있고 기둥이 없으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에도 기둥이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도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건강한 가정, 튼튼한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나무기둥도, 돌기둥도 튼튼한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주춧돌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은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려면 친구의 유혹도 이겨야하고, 부질없는 욕심도 이겨야하며 자신과 싸움에서도 이겨야만 주님께 쓰임 받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님은 우리들을 쓰이기 위해서 의지와 뜻을 꺾으시고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요셉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또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가진 편견이나 습관을 버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세워질 주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적부터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로 발걸음을 옮겨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빠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교회 2층 유치부실에는 주일마다 0살~7살 아이들 40여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10명의 교사가 어린 생명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여건상, 유아반과 유치반을 따로 나누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마다 신앙의 꽃을 예쁘게 피워가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여 유치부를 알리며 주님께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율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성경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아이들마다 파란 천사날개를 등 뒤에 달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던지요..

늘 아이들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시는 이길구 목사님과 여러 유치부 선생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소명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위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 할지어다" (마 25:21)

간간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맡겨진 작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은혜로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기둥으로 우뚝 세우리라... 다짐해 보며 회년교회 유치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봅니다.

## 회년교회 유치부 비전과 목표 .....

1.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예배가 된다.
2.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 작은 제자로 양육하는 예배가 된다.
3. 더 풍성하고 행복한 경험을 함 나누며 체험하는 예배가 된다.
4.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춘 예배가 된다.
5. 가정과 교회가 연계 되도록 교사는 은혜로서 준비하는 예배가 된다.



## 희년교회 초등부는요...

집사 유봉좌

**살롬!** 매주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희년동산 희년교회를 통해 영광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전센터 3층 드림홀은 초등부 예배실! 저희 초등부 예배모습 궁금하시죠?



AM 9시 20분  
예배 전 QT로 시작하는 교사회의



AM 9시 50분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 시~작!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드려요.



AM 10시  
사회도 친구들이 직접 본답니다.



기악팀-매 달 첫째, 셋째 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켜는 아름다운 선율, 은혜의 찬양



성가대-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답고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가대



은혜의 말씀 시간-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지혜와  
키가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친구들.



5주 특별강좌- 영어로 주기도문을 배워요



공과 공부-말씀을 배우며 다양한 활동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요



AM 11시 15분  
또 다시 교사회와-다음 주 계획과 우리의  
부족함과 도우심, 친구들을 위해 함께  
통성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마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어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과 복종을 겸해서 따라야 하지요. 2011년의 회년교회의 사역표어는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가는 초등부가 되길 기도하며 원합니다. 7세 이전에 믿는 믿음은 평생가고 초등부 때 믿는 믿음은 80~90%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사충만으로 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원합니다.

## 회년동산의 미래 주인공인 중고등부를 소개합니다.

집사 김선희

**내가** 우리 중고등부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01년부터 2부예배 성가대를 하다가 가르치는 직업을 갖은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하여 정진균집사와 함께 2005년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본당아래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서 중고등부가 있었고 그 옆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중고등부 교사회의를 하였다. 그래도 찬양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수련회를 열심히 하였다. 좁은 공간에서 1부 예배를 마치고 반별 공과공부를 하는데 비좁은 공간에서 여러 반이 함께 공과공부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았다.



여유있는 가능한 공간을 찾아 고민하던 중 2007년에 금암복지회관을 주일에 빌려 강당에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어서 해 보기도 하고 후에는 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반으로 나누어 공과공부를 하였다. 매주 선생님들은 예배를 위

해 악기들과 관련 서류철을 교회에서 가지고 왔다가 끝나면 다시 교회로 가지고 가곤 했다.



그러던 중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비전센터 건립을 교회에 요청 하였고 드디어 2009년에 비전센터를 완공하였고 감사와 찬송으로 첫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였는지... 이 때 처음으로 중고등부 주관으로 재활용 옷을 모아 바자회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09년 12월에 "희년 문화의 밤" 행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 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워크숍도 갖게 되었다.

2011년 2월에 본당에서 개최한 제 2회 "희년문화의 날" 행사는 오히려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작년 11월부터 계획한 이 행사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행사로 방향을 잡았는데 겨울수련회와 공과공부시간을 쪼개어서 연습을 하도록 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계획한 날은 점점 다가오고 교사들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팬히 이런 것을 계획해서 신경만 쓰게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걱정을 하였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며 이 날을 기다렸다. 행사 전 날 마지막 리허설을 할 때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희년 문화의 날이 다가왔다. 오후 예배를 여는 찬양은 손정권집사와 우리 학생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걱정했던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찬양을 부를수록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가슴에 적셔지면서 안심이 되었다. 제 2부로 학생들이 준비한 문화의 날 행사는 찬양, 악기연주, 콩트, 연극, 마술과 피아노독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창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완벽하게 진행되고 우리 학생들도 완벽하게 잘 해서 2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렸다.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우리 아이들은 준비한 것보다 더 잘 하여 이 희년문화의 날 행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

여기에는 공부하느라 바쁜 고3 학생들 7명이 모여 오카리나를 이용한 연주도 있었다. 우리는 그 날 문화의 날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다 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아이들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우리 중고등부는 재적인원은 60여명이고 출석인원은 50여명이다. 그런데 올해 중1학생이 많이 들어오면서 7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이제는 매주 60-65명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담임교사 10명, 찬양지도교사 1명, 예배진행교사 2명, 그리고 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정근 부목사님이 예배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주일날 9시에 교사회의를 갖고 있으며 10시에 예배를 시작하여 찬양 30분, 설교 30분 그리고 공과공부 30분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학생들의 취미에 따라 운동반, 찬양반, 예쁜글씨쓰기반(POP)와 독서반(6월부터 예정)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딸 인 희년교회 중고등부에 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놀고 행복한 주일을 보내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의 미래, 희년교회의 미래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는 길인가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올해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넓은 곳으로

나가 세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도록 여름수련회를 제주도로 가려고 계획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도하고 나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교사들의 릴레이 기도, 학생회장단의 릴레이 기도 등을 통해 수련회에 가기도 전에 우리의 믿음은 이미 높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도전을 할 것이다.

희년동산의 미래인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희년 성도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이런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 열혈청년!! 희년교회 청년부

구성



청년부 회칙 (2010년 최종개정)에 의해 청년부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 결혼 전의 모든 형제자매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원(회장, 회계), 리더(셀 리더, 팀 리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청년부는 임재선 회장, 유나리 회계, 박가영 서기, 4명의 셀 리더 (강철하, 라하영, 강규성, 강진구) 3명의 팀 리더 (최명철, 강규성, 이진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길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과 축도로 섬겨 줍니다.

부장집사님이신 이성철 안수집사님께서 청년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전체적인 청년부의 조율과 기도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예배 -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기쁨의 예배



### 이 예배가 최선이에요? 확실해요?

희년교회 청년예배 주말오후 1시 비전센터 2층 비전홀

"이 예배가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드라마를 패러디한 멘트가 교회 앞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최선이고 확실한 예배가 드러지기 위해 항상 기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어떠하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생각합니다.

청년예배는 열려있는 찬양예배로 드러집니다. 여러 순서를 생략하고 찬양, 말씀, 기도로만 예배가 드러지고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회복 시켜주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기쁨의 예배가 드러지길 원합니다.



#### 셀 모임 -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청년 공동체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주중에 Q.T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부 Q.T책을 구입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서로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예배 후에는 직접 모여 서로의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사도행전으로 Q.T를 진행했습니다. 계획하진 않았지만 고난주간과 Q.T의 내용이 같아 청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스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사사기를 통해 Q.T를 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주님을 잊고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적인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팀 모임 - 중보기도 팀, 새가족 팀, soul 찬양 팀

중보기도 팀은 매주 토요일 7시에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매주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Soul 찬양 팀은 매주 토요일 7시에 모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의 절반이 찬양으로 드러지기 때문에 찬양 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더 강조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위해 기도하고 연습합니다.

새가족 팀은 우리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훈련시키고 기도해 주는 팀입니다. 처음 청년부에 오면 3~4주 동안 새가족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각 셀로 편성합니다.

작년에는 50여명의 청년이 등록하였고 올해는 23명의 청년이 등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정착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청년부 행사

2월에는 리더 리트릿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리더 리트릿을 통해 올해의 계획을 정하고 각자의 사역과 회년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스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는 김경중 장로님택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새로 올라온 11학번, 새신자, 기존의 청년부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매년 두 번씩 진행 되고 있는 캠퍼스전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많은 수의 전복대생이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1주일간 아침 8시~9시 사이에 교회 앞에서 전도용 티슈와 커피를 나눠 주었습니다.

4월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4월까지 청년부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존의 청년부와 서로 친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야유회, 청년부 하계수련회, 몽골 단기선교, 슈퍼스타 H 시즌2(셀별 찬양대회)등 많은 행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당 목사님이 오시면 청년부 알파, 성경공부, 확신반, 성장반, 리더 훈련등 여러 훈련이 진행되기 원합니다.



## 청년부의 비전

###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청년부

세상의 유혹에 많이 노출 되어 있고 비전을 고민하는 청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성령과 말씀이 필요 합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세상의 유혹에 맞서 승리했으면 합니다. 또한 비전을 고민할 때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 복음을 전하는 청년부

캠퍼스에 인접한 회년교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캠퍼스 전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등교 길 차 나눠주기, 캠퍼스 노방 전도, 교육관 개방 등 여러 전략을 통해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등록한 청년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성장 시켜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 갈급함을 가지는 청년들을 영적으로 채워주고 방향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회년교회 청년부가 전주지역 청년복음화의 초석이 되길 기도합니다.

### 열방향한 청년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청년부 자체적인 선교훈련과 1년에 1번이상의 단기선교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선교대상은 지금 교회가 파송한 J국을 비롯하여 비전도 층족이 될 것입니다.

회년교회 청년부를 통해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고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처소와 역할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 청년부 프로그램 안내

청년예배 - 주일 오후 1시 비전센터 2층 비전홀

청년 셀 모임 - 주일 예배 후 비전센터

청년 중보기도 모임 - 토요일 저녁 7시 비전센터 3층 청년부실

Soul 찬양팀 모임 -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센터 2층 비전홀

청년부 홈페이지 : club.cyworld.com/hnj

문의 : 010-9884-5535 (임재선 청년회장)



## 열매의 감사

장로 최정순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저는 산후에 큰 병을 얻어 이곳 저곳의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전도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해주면서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큰 아들이었고 불신자였습니다. 저의 병원 생활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방황을 하다가 기도하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폭발에 대한 훈련을 받고 매주 화요일 오전에 병원으로 관계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겪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주차장 주인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는 듣지도 않을뿐더러 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교회에 가겠다는 말만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학교에 다니는 그 분의 딸을 교회에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편입을 하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에의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연말 즈음에 친정에 다니러온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가까이 사는 집사님이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직접 찾지 않았기에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입원해있을 거라는



병원에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간 김에 딸을 만나보려고 딸의 입원사실을 확인해 보았지만 입원환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퇴원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딸은 병원 응급실과 병실을 교대로 드나들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딸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다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딸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자 현애 아줌마인 저를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마는 저를 부르게 되면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딸에게 첨단 시설의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자고 설득하고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통증은 한 달이 넘게 계속 되었고, 그 분은 자신의 딸과 태아 모두가 매우 위험하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느꼈는지 2010년 1월 27일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서둘러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딸은 팔에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눈꺼풀은 거의 풀려 있었으며 몸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저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해주셨고, 그 기도로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딸은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학생 때 들은 복음 즉, 제가 믿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엄마는 뽀뽀한 3.2kg 아기를 순산하게 해 주시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아이의 출산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분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세례도 받는다고 아주 기뻐합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몇 번 나가보고, 결혼해서는 하나님을 잊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찾고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딸에게 먼저 복음을 영접하게 했던 것 입니다. 딸은 물론 본인 뿐 만 아니라 80세가 넘으신 노모를 전도하였으며 머지 않아 사위도 교회에 나갈 것 같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학생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수년 후에 몇 배로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희년교회 전도폭발 대원들은 매 주 화요일 오전 모든 일을 미루어 놓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집사 양춘례

**생활이** 단조롭거나 권태로울 때

여행을 하라고 한다. 사람은 똑같은 일, 똑같은 음식에 곧잘 싫증을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중의 하나이다. 여행은 날짜를 손꼽아 가며 준비할 때는 설레고 막상 여행길에 오르면 고생이 많으나 그래도 신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여행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 어릴 때 추억도,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낯선 산과 들,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생각만 해도 설렌다.

겨울 벗어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지는 상큼한 봄이다. 따듯한 햇살에 한동안 서 있으면 등허리가 따스해 온다. 게다가 불어오는 바람은 얼마나 감미로운지... 집에 있는 나를 놔두지 않는다. 물오른 잎이 고개를 내밀고, 앞 다투어 꽃 피우려 아우성치는 예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봄... 가물가물한 아지랑이에 꾸벅꾸벅 졸게 해도 밟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며, 가슴 속 설렘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운 짝을 찾아 나서고 사랑을 싹 틔울 준비로 하루해가 부족하게 하는.. 축복된 계절이다.

그런 축복된 봄날 3월 12일, 경상남도 영주시와 봉황군에 걸쳐있는 봉황산, 금오산 산행을 하기 위해 우리 대원들은 교회에서 25인승 버스에 몸을 싣고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익산~광양 간 새로이 시원스레 뚫린 고속도로를 구경하며 10시 20분 봉황산 밑자락에 도착하였다.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봉황산(鳳凰山 460.3m)은 바로 야트막한 동네 뒷산 모습이었다. 조망도 그렇고 산길이나 제대로 나 있을까 의문스러울 만큼 밋밋했다. 하지만 옛날엔 봉황이 살았다는 전설도 있고, 돌산도(突山島)에서 가장 높아 상산(上山)아란 이름도 지니고 있다는 봉황산. 그러면 그렇지, 산은 낮지만 능선까지 가는 길은 급경사 길이었다. 또한 정상 능선에 올라서니 삼면이 다 보일 정도로 조망이 뛰어났다. 산과 바다를 함께 맛보니 마음이 넉넉해졌다. 산 밖으로 바다가 펼쳐지는 남도의 산을 오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햇살에 고기비늘처럼 반짝이는 물살을 가르며 배가 꼬리를 흔들며 떠가고, 여수만 건너 멀리 남해 금산이 열은 바다 안개를 헤치며 솟아올라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산이 봉황산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여유도 잠시.. 금오산을 향했다. 형란집사님은 산 다람쥐보다 빠른 걸음으로 날씬한 몸매의 장점을 과시했고 남자대원들은 느린 행보로 여유를 과시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드디어 도착한 금오산(金鰲山 323m).

정상에 올라서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바다다. 동쪽 바다는 힘을 잃었으나 서쪽바다는 오후햇살에 금빛비를 반짝이는 거대한 물고기다. 금오산은 거북이 경전을 등에 지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향일암에 거북형상이 많은 거란다.

따스한 햇살을 등에 지고 질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니 몸이 아지랑이처럼 떠오를 듯 기분이 좋았다.

아쉬움을 남겨 두고 다음을 기약하며 전주로 출발. 오는 길에 기상도 장로님께서 사주신 순두부백반을 맛있게 먹으며 4월 산행은 근교에 있는 위봉산, 장군봉으로 결정하고, 각자 가족의 품으로 go go~!!

지친 몸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우린 아름다운 자연의 순수함 앞에 숙연함을 배웠고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산천을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했다.

## 감사의 비결.. <아델포스>

집사 홍진명

**살롬!!** 회년 5년차... 홍진명 집사입니다.

2007년 1월 첫째 주 주일예배. 회년교회에 처음 등록한 날이다.

25년이 넘게 예배 때 반주만 하다가 객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의 찬양이 나를 압도했다. 이것이 내가 회년에 와서 처음 받은 감동이었다. 찬양을 듣고 있자니 내가 그 찬양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늘 상 어렸을 적부터 성가반주와 예배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며 무언가 뜨거움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나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졌다. 직접 입술로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뜨거운 성령체험을 할 수 있을까.. 강한 열망이 생겼다.





얼마 후 또 다른 은혜를 느꼈는데 바로 <아델포스>이었다. 오후예배 때 들은 아델포스 특송에 난 그만 첫 눈에 반해 버렸다. 잔잔한 감동 속에 언젠가 우리 부부도 저기 중창팀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협력하여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아델포스 찬양예배 때 같이 찬양하고, 작년 익산 예안교회에서 IF팀행사 창조출연을 통해 또 다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했다.

3부 반주를 그만둔 얼마 후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조용히 찬송가로 하나님을 만났다. 찬송가를 가슴깊이 연주하고 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피아노라는 달란트... 찬양하는 순간이 나는 미치도록 좋다. 찬양반주 할 때는 그야말로 미치도록 행복하다. 음악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영원한 음악쟁이 인가 보다.

하지만 이제 그걸 거두어 가시려나 보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이제는 악보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아델포스>를 주셨는가 보다. 한데 요즘은 각막이 더욱 혼탁해 지고, 비문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 한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간증이 있는 조그만 콘서트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에 힘들지만 노력해 볼 생각이다.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원대한 꿈을 펼쳐 보이며 돋보이게 살아가는 삶은 아닐지라도, 살면서 때때로 실수와 방황으로 흠 있게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아델포스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셔도  
마름이 다하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아델포스'의 비전을  
한 스펀 찻잔에 담아  
휘~이 저어본다.

방금 문자가 도착했다. 4월 20일 익산 예안교회에서 찬양이 있는데 또 4월 24일 부활절에는 서곡에 있는 상림교회에서현당예배 겸 장로권사 임직식때 특별찬양이 있다고..

와~~아델포스, 바쁘다 바빠~~ 주님께 영광!!



권사천삼례

**교회에** 다니면서 회년의 공동체에서 반찬사역

담당자로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지도 삼년해가 됩니다.

언제나 가정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나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고 싶었지요. 어느 팀에서 봉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수요일마다 행하여지는 반찬사역팀에서 봉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찬은 하루 전날에 시장을 두루 다니면서 싱싱한 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놓고, 수요일 아침 9시에 팀원들이 교회로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바쁜 손놀림으로 양념을 듬뿍 넣고 맛깔스럽게 음식장만을 합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포장한 후에 24가정에 배달합니다.

배달 장소는 평화동, 아중리, 서신동, 중화산동, 덕진동 등 전주시내 곳곳이며 대상자는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말벗이 되어주고 청소도 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교회에 반찬을 가지러 오시는 분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상도장로님과 관리집사님에게도 늘 고맙습니다.

작년부터 채소 값과 양념값이 강종 뛰어 물건 구입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도 물가 시세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몽골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반찬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몽골인들의 표정은 항상 밝게 빛이 납니다. 더 많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또 화요일 실버 모임에도 우리들이 어르신들을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식사하시는 권사님들을 모습에서 먼 훗날의 나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회년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써 주님의 낮은 자를 위해 섬김의 자세를 보인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병든 자를 섬기고 어르신들의 마음의 벗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함께 한 시간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와 부족한 믿음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들의 손길은 나눔의 등불이 되어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손길에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 제주도 2박 3일 여행 course

권사이인순

해마다 에스더여신도회주최로 수련회겸 여행을 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 여행에는 33명이 참여했고, 모든 여행코스대장은 김영자 권사님이다. 일기예보는 전국이 비, 흐린 날씨, 출렁이는 풍랑~~  
그러나 제주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였다.



스타 크루즈호(star cruise)는 지난 2월 4일 전남 목포~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 국내 항로를 다니는 여객선 중 최대 규모인 1만 5089t 급이다.

스타 크루즈호 탑승자는 수학여행 학생들로 가득 찼다.

25일 아침 9시 목포에서 이 배를 타고 4시간 20분 만에 우리 팀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주항에 도착했다.

### 한림공원 (HALLIM PARK)

2천 여종의 아름답고 희한한 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아열대 식물원, 제주석 분재원, 재암 민속마을, 파리조류원, 야자수길,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 등을 돌아보았다.



### 한라수목원

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절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수목원이다. 한라수목원은 자연스럽게 '휴식' 과 '여유' 와 '어울림' 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한라수목원의 '남짓은 화장실'이란...

이곳 동쪽에 위치한 오름명은 남조순 오름으로써, '남조순'은 '남짓은'과 같은 뜻의 (남)나무가 (짓은) 무성하다는 제주어이다.

따라서 나무가 우거진 곳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의미가 있다.





## 수련회 기도회

낮에는 여행을 하고 밤에는 윤효숙장로님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로 부흥회를 했다.



## 절물자연휴양림 (Welcome to visit 오십디강 잘 쉬었다갯싸얌)

40년생의 삼나무 숲 향기 "피톤치드"로 울창한 숲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절물자연휴양림. 청정자연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보면 상쾌한 기분으로 몸과 마음이 가뽀해짐을 느낄 수 있다.



## 에코랜드 (Eco Land)

꽃자왈 (Gotjawal) 숲속기차여행은 독특한 즐거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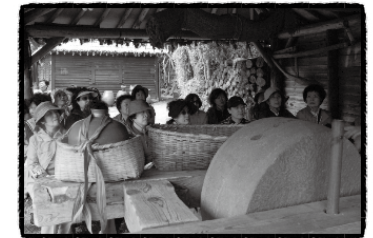


꽃자왈 (Gotjawal)

'숲'이란 의미의 '꽃'과 암석과 가시덤불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뜻하는 '자왈'의 제주도 방언

## 성읍민속마을 (흔저읍서 - 어서오세요)

제주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제주를 대표하는 민속마을로 실제 주민이 살고 있다.



## 성산포 (섬지코지)

올인드라마 촬영장과와 섬지코지 해안 그리고 바위로 둘러친 해안 절벽과 우뚝 치솟은 전설어린 선 바위 등은 전형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곽윤자, 최봉이, 김광숙, 양삼례, 김영자

## 민속자연사박물관

화산섬으로 제주도의 지역적, 지형적, 기후적으로 육지와는 색다른 자연적특성과 다양한 민속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전주희년교회 네온을 배경으로 전체사진

##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장소에서 일출, 일몰을 볼 수 있는곳, 뛰어난 해안 절경, 오랜 해풍의 영향으로 인한 기암절벽과 억새밭으로 유명하다.



## 골프카터를 타고 자장면을 먹으러 가는 신기한 섬에서

골프카터 안에서 사진을 찍은 소라 껍질 등처럼 만들어진 마라도 성당. 독특한 섬풍광의 마라도는 싱싱한 회, 툇자장면을 먹으며 추억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 하나님의 연못이라고 불리우는 천제연 天帝淵 - cheonjeyeon

울창한 난립지대 사이로 떨어지는 3단 폭포가 신비로웠다. 천제연폭포 주변의 계곡은 천연난 대림지대로 담팔수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비취색으로 물 맑고 경관 또한 수려해 금상첨화다.



## 선임교에서

선임교[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다리]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폭포가 보인다.



최영옥, 최양근, 최복자권사

## 제주국제평화센터

'세계평화의 섬 제주' 는 그간 "삼무정신" 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 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되어 31분의 극사실 인물 모형 전시(밀랍인형전시관)도 있다.



클링턴대통령과 함께 천삼례권사



우리는 가이드 지휘에 맞추어 '나의 살던 고향'을 불렀다.  
재미있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었다.

주상절리 - 수많은 사각형, 육각형 돌기둥 바위들이 깎아지른 해안절벽을 이룬 곳.

특히 이곳 절리대는 최대 높이 약 25m에 달하는 수많은 기둥모양의 암석이 중문, 대포 해안선을 따라 약 2km에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마치 신이 빚어 놓은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약 14만년~25만 년 전에 형성된 조면현무암(粗面玄武岩)으로 이루어져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환상적인 주상절리대를 마지막 여행코스로 마치고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에 감탄을 하며 다녔던 2박 3일 동안 비 한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잔잔케 하신 풍랑, 우리들 심령에 단비를 얼마나 뿌려주시는지...,

감동, 신비로운 충격, 환희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맘껏 누렸던 여행이었다. 모든 은혜 감사 충만.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제주도가 뽑히기를 기대하면서..





## 기타는 내 친구

김서현 (중등부 1학년)

"서현아, 기타를 배워 보는 것이 어떠니?"

작년 이맘 때 쯤 엄마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3부 예배를 마친 후 엄마께서는 2시간 정도 식당 봉사를 하셨다. 그 때 마다 나는 책을 읽거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었다. 그런 나에게 엄마께서는 기타를 배워 볼 것을 권하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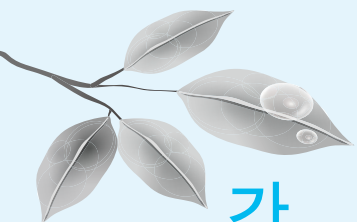
처음엔 망설였다. 어리기도 했었고, 왠지 기타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기타는 다른 악기보다 배우기 쉽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배워두면 좋을 것이라고 하셨다. 무엇보다 요즘엔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르쳐주시니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이었다. 엄마의 설득에 결국 나는 기타를 배우게 되었으나 처음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악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타 선생님께서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쉽게 배울 수 있었다. 교회 갈 때마다 기타를 메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고, 손가락 꺾질이 벗겨질 때는 아프고 힘들기도 했지만 나는 점차적으로 기타 연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집에서는 아예 기타를 꺼내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두고 틈 날 때마다 수시로 연습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가 기타를 배운다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담임선생님 요청으로 학교에 기타를 가져가 연주를 하기도 했다. 그 때 친구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었다. 기타를 멘 내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좋은 것을 배운다고 칭찬해주시기도 한다.

기타를 배우게 된지 1년 남짓 된 요즘은 대중가요를 끝내고, 찬송가 연주를 배우고 있다. 지금은 기타를 배운 것이 아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기타를 실컷 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느새 기타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먼저,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웃으며 열정적이신 정승진 집사님께도 감사드린다.





## 간증

### TESTIMONY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소철 선 (알파 6기)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살아온 저의 하루는 사우나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힘담, 또는 부동산이야기, 음식은 무엇이 좋으니 하며 매일 세상 돌아가는 오만 잡동사니 이야기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즐거웠고 신바람 나고 때론 속도 시원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전 '기쁨조' 였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나에게 몇 년 전부터 잠을 잘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친 우리 집은 어느 날인가부터 무거운 기운이 감돌며 서로가 서로에게 냉담해져 갔습니다. 잠을 못 자 나날이 예민해지니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했던 남편은 자꾸만 저의 눈치를 살폈고, 착하고 듬직한 큰아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신과로 술로 이겨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젠 갱년기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그렇게 자만 속에서 병원은 멀리하고 자꾸만 술에 의존하게 되자,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은 더해졌고 세상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우나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던 아는 언니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였고 난 구원에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 속에서 세상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신반의함 속에서 주일을 지키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알파를 만나게 되었는데!! 난 거기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술을 마시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순간 술병을 쥔 손에 힘이 풀려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으며, 또 다른 날엔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술잔이 반으로 썩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전 저도 모르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똥똥 뭉쳐진 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만드신 것을 깨달았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모습을 책망했으며 자괴감에 한없이 후회하며 빠져린 후회에

눈물과 반성과 부끄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알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아 가며 살아가는 저에게 주위에선 예전의 예쁘고 상냥한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며 병원(하나님이 의사이신 교회)에 잘 다니냐며 기뻐해 줍니다.

심지어 시아버님조차도 참 좋아 보인다고 남편과 아이에게 엄마 따라 교회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제 저희 집은 그야말로 행복이 넘칩니다. 남편과 아들은 목요일이면 저를 챙겨 교회에 보내기 바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항상 기쁨의 찬양과 감사기도를 올리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낮은 곳을 보시게 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수없이 기도하며 제가 가족과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한 제 주위에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빨리 알아가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 알파.. 사랑해요

정은혜 (알파 6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알파 소모임 중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라 그 느낌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에 익숙해져버린, 아니 리더 집사님의 말씀대로 무뎌져버린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너무나 꾸준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체험이었기에 교회나 크리스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다니던 교회 생활과 누구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 아닌 정은혜성도로서 교회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다니며 자주 눈에 띄어왔던 교회이기에 회년교회를 선택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년교회에서 1년, 2년...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함께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을 회년교회에서 함께 했지만 가족처럼 어울리는 일은 웬지 어려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왕성하게 참여했던 봉사들도 이젠 남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와 제 남자친구를 챙겨주시던 설정례 권사님의 권유로 알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제겐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모태신앙인 제가 섬김을 받는 입장의 게스트가 된다는 사실도 불편할 것 같았고, 아직 서먹서먹한 교회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편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초신자들이 주대상이기에 기신자인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초신자였던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험삼아 한번 참여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영향인지 저는 복지계열의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내재된 마음속에는 배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로서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고보니 부모님 연배이신 리더와 헬퍼집사님들의 배움이 약간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반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느낌의 따뜻함이 가슴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또한 너무 맛있는 식사를 챙겨 주시던 손길과 따뜻한 미소로 차를 제공 해주시던 분들의 마음까지 더해져 불편한 마음은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리에서 일주일간의 삶은 어땠는지, 고민은 없는지 진솔하게 안부를 나누며 식사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이어지는 찬양시간은 따뜻해진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는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은혜로운 찬양들을 하다 보면 가사만 들어도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울컥한 적도 많았습니다. 울컥한 마음은 유머시간에 즐거운 이야기 나눔으로 안정되고 정돈된 마음으로 토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맺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 부활, 성령은 너무 오랫동안 자주 들어온 이야기이기에 그저 그러려니하고 듣던 1주차, 2주차가 지나자 점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스러운 단어들을 너무 오랜 시간 감동없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부활에 기뻐하며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계속 감사,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성령수양회와 치유사역시간을 통해 더 깊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과의 첫 사랑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수양회때 저희 조는 양택조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양택조? 사람 이름인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양자택일"의 약자로 "양택"을 선택하여 세상의 쉽,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알파프로그램 중에 알파를 선택한 조원들의 모임이라는 멋진 뜻을 내포하고 있었답니다. 조원들이 젊은 여성들이었기에 학업이나 업무등 바쁜 일정들 속에서 세상적인 쉽을 원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길로 알파를 선택한만큼 리더집사님과 헬퍼집사님을 중심으로 너무 멋진 화합의 모습을 발산하였습니다.

마지막 10주차, 오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저녁에 바베큐 파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팀의 기도 덕분에인지 날씨가 개이고 교회 옥상에서 너무 멋지게 준비된 바베큐파티가 열렸습니다.

오전에 내린 비 때문인지 꽤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조원들은 얇게 입을 옷을 후회하며 떨며 파티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알파의 토크~, 강순홍목사님께서 우리 조원들을 위해 겨울 겉옷을 직접 꺼내 건내주셨습니다. 제가 걸쳐 입은 파카는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파카가 두꺼워서라기보다 목사님의 배려에 대한 감동이 제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데워주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티 후 이어졌던 토크에서는 교회에 대해 "가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년교회에서의 몇 년 동안, 나는 회년교회 가족의 일원이 아닌 종교인은 아니었는지 떠올려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년교회에 가족으로 속해 있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알파를 통해 가족같은 우리 조원들이 생겼고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리더, 헬퍼집사님들과의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목사님들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배려와 섬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언제나 배려를 강조하셨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에 새삼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2011년 5월 15일 주일, 알파코스 수료식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말씀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알파수료생과 스태프들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릴 적 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라며 어머니께서 제 찬양으로 지정하여 불러주시고 알려주셨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나타내셨고 지극히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뜨거움으로 채우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알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더 큰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 알파코스를 마치며

김광석(알파 6기)

**지난** 12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부산 선생님께서 맞선을 주선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식사나 같이 하자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전주에서 부산까지 너무 멀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3번은 만나 봐야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3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저에게 정성스레 쓴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는 무조건 독실한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막 저의 마음에 그녀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만약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난 천주교를 택할 거야', '기독교는 웬지 파벌이 많고 덩치 키우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곳이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가 났던지 교회를 다녀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2월에 회년교회를 알게 되었고, 3월3일 알파코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주 동안 목요일의 모든 약속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환영, 맛있는 식사, 생기 넘치는 찬양, 예사롭지 않은 유머, 목사님의 말씀, 소그룹모임까지 첫 알파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교회에도 적응을 하니 목요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40여명의 게스트를 위해 애쓰는 100여분의 스태프와 회년교회 모든 분들의 노력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그녀에게



식사메뉴를 찍어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알파에 대해서 제가 사랑을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부럽다고 합니다. 꼭 회년교회 알파에 참석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 식사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소모임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과 만나 개개인의 생각이나 삶에 대해 얘기하며 각자 한 주간의 삶에 대해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알파는 초신자인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해답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알파 6기를 통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던 저는 성령수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오만함과 욕심이 가득한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회년교회와 알파를 만나면서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곤 했는데, 이제는 성경, 수필집, 마음의 양식을 읽으며 책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일과 목요일은 약속을 잡지 않아 친구들과로부터 멀어졌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새로운 많은 가족이 생겼으니 행복합니다.

알파를 통해 교회와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가졌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열린 생각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파는 저에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듯 저의 믿음도 항상 진행형이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알파코스를 이끌어 주신 강순홍 목사님, 모든 스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알파코스를 참석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 알파 7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파 7기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녘 땅에도 교회가 있을까?

집사 이근모

종교를 아편과 같다고 여기는 공산주의국가 가운데 가장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북녘 땅에도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그들이 체제 홍보를 위해 내세우는 선전용 교회가 아니라 비록 적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북녘 땅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북조선 중앙개발특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남과 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지 어언 60여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서로 간에 총부리를 겨누며 긴장이 끊이지 않는 남과 북에서 매일같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며 일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동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작년 6월, 이곳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책임자로 제가 결정이 난 후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남북 당국 간 안전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위험한 곳이라 주변의 만류와 떨어져 살아야하는 가족의 반대가 있기도 했으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과 그래도 아직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개성공업지구는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7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군 포병기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를 임차하여 섬유, 전자, 식품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한 회사는 약 100여 개로 남측인원은 1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북측인원은 5만여 명이 개성주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측 주재원은 말 그대로 이곳 회사내 숙소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로써 한 번 출경하면(이곳에 오면) 보통 2주후에 입경(남측에)하게 됩니다. 북측에 출경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서 방북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주로 북측 사람들과 접촉 시 주의할 점, 갖고 들어가면 안되는 물건(특히 종교서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후 방문3일 전에 통일부에 방문신청을(입출경 및채류일시) 하여 북측에서 입경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야 방문을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자유로를 통해 3시간 경기도 문산을 지나 민간인통제선인 통일대교에 이르면 먼저 군인들이 검문을 합니다. 검문을 지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법무부출입국사무요원 및 관세청직원의 출입절차를 거쳐 차량에 탑승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던대로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남방한계선 철책 문이 열리고 우리 측 군인이 앞장서 출입차량을 인도합니다. 약 2km 정도 들어가면 북한군의 군용차량이 인계를 받아 북한땅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북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하는 곳을 지나칠 때면 이제는 북쪽 땅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긴장하곤 합니다.

북의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하여 입경수속을 밟을 때면 혹여나 그들에게 트집을 잡히지나 않을까하여 눈이라도 마주치면 팬시레 주눅이 들곤 합니다. 이곳 사무소에는 인터넷이 개통이 되지 않아서 수기로 적은

명단으로 일일이 사람들을 확인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인원 및 화물의 출입절차가 끝나면 이번에는 북측의 안내원(민간인)이 우리가 탄 차량을 공단이 있는 곳까지 인솔하고, 그리고 나서야 공단내 각 회사로 각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장내에서는 북한주민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와 근무할 때에도 결코 혼자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한 사람만 남게 되면 일하다가도 곧바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도 두명이 되어야 들어옵니다. 아마도 서로 감시하도록 지시받은 것 같습니다. 말할 때와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이지 많이 떨렸습니다. 밤에 숙소에서 잘 때도 혹시나 북측사람들이 저를 납치를 하지 않을까하는 괜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허나 이제 2년남짓 지나니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회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모임이라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숨어서 예배를 드린 신앙 선배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참석하는 인원은 적으나 그 열기만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남측에서 매주 목사님 두 분이 교대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북측의 입경거부로 또는 출입절차 착오로 목사님이 들어오시지 못할 때는 자체적으로 신앙의 증언시간을 갖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비밀리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열기와 열정은 뜨끈뜨끈 합니다. 특히 2주에 한 번씩, 전주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필요할때면 누구의 감시없이 언제나 소리높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 우리 14목장 예배에서 임순덕 권사님께서 권면하신 [오늘의 양식] 책자를 용기를 내어 몰래 숨겨 왔습니다. 매일 아침 숙소에서 일과시작 전에 한 장씩 읽고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비록 지금은 숨어서 드리는 예배지만 머지않아 이곳 북한 종업원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 육체는 영혼이 잠깐 머물다가는 순간의 집일 뿐....

집사 정은숙

2010.2.16(목)

저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지난밤 내렸던 눈이 소리 없이 다 녹아 없어진 것을 보니 시리도록 추운 날들이 거의 지나고 봄이 머지 않았나 보다.

감기에서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언니가 더 이상 산소호흡기로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 급기야 기관지 절개수술을 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연락을 받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절개수술이 잘 되도록 울며불며 주님께 기도하다가 별수 없이 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몇 줄의 메시지는 늘 많은 힘이 되었다. 그런데 수술을 한다는 언니가 갑작스레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 절개수술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이 다시 왔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망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때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언니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일까? 순간순간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가련한 언니의 생명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책 속에서 자주 나오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저리고 시릴만큼 아프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69년이란 삶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지 못하며, 단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진 날이 없이 오직 주님의 충성스런 종으로 살아온 언니에게 주신 고통을 전 정녕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원망하기도했고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정녕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경칩이 며칠 안 남았다고 사람들은 오는 봄을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가련한 우리 언니는 언제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부르며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을까? 아픔을 서로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11.2.22(화)

더 이상 서울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한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한다.

조카들과 상의한 끝에 언니를 고향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했다.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긴 시간을 가는 도중에 운명할 수도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만류했다. 의사에게 운명해도 좋다는 싸인을 건네고 언니를 구급차에 옮기려는데 도중 산소수치가 50.40.30....10..5..4..로 순식간에 막 내려갔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목사님께 숨가쁜 메시지를 보냈다. "목사님!! 언니가 곧 운명할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손을 벌벌 떨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울며불며 중환자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잠시 후 정말 거짓말처럼 호흡기 수치가 다시 올라갔다. 서둘러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휴대용 산소호흡기 하나에 생명을 의지하며 고향으로 향했다. 다섯 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생각했던것 보다는 비교적 편안하게 기적적으로 여천에 있는 전남병원으로 옮겨졌다. 새벽 두 시 정도에 도착한 언니는 거의 눈을 뜰 힘조차,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다.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이 부어오르도록 울었다.

병원용 산소호흡기로 겨우 응급조치를 하고 언니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아침이 될 때까지 언니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이러다가 이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오전 진료시간에 만난 주치의는 언니 폐사진을 보여 주었다. 폐가 완전히 하얀색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 이제 정말 언니와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예감이 몰려왔다.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다.

"하나님, 우리 언니!! 너무 좋은 엄마같은 우리 언니 아직은 곁에서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천병원으로 옮긴 후 언니는 조금씩 편안해졌다. 보고 싶은 교인들도 전부 만나고 병문안 온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미소도 보이면서 많이 호전되는 듯 했다. 오늘 언니를 보고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걸 보니 언니가 정말 좋아질 것처럼 느껴졌다. 언니를 만나고 오는 내내 기차에서 어쩌면 기적처럼 좋아질 것만 같다는 마음과 언니의 따스한 눈웃음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다.

2011.2.28일(월)

"따르릉, 따르릉 ...." 마침 유치원 아이들 입학식의 날이라 조금 서둘러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듯하다. 계속 울리는 핸드폰을 받지 못했다. 곁에 서 있던 남편이 대신 핸드폰을 받았다. "알았다"고 하면서 내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 "언니 돌아가셨다고? 맞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출근하려던 발걸음을 내려놓고 거실이 떠나가라 큰소리로 목놓아 얼마나 울었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치원 아이들의 입학식을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다. 남편이 한참을 곁에서 위로하더니 그래도 입학식장에 원장이 얼굴이라도 보여야하지 않겠냐며 달랬다. 정말 이 순간만큼은 내가 왜 유치원 원장이 되었는지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언니를 보내고서도 부모들과 아이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초연하게 입학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인사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거의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교사소개만 하고 입학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언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입구에 있는 TV 화면에 "고 정성자님, 몇 호" 라고 쓰인 화면 안에서 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구에서 그만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 일어 날 수가 없었다. 남편의 부축으로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니 꿈인줄 알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화 꽃 속에 둘러 싸여 청아한 모습으로 언니가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우리 언니는 그 날 주님의 품으로 편안히 안겼다.

그동안 저희 언니를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많은 시간동안 기도해주셨던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 그리고 여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만 오면 우리교회에서 늘 예배를 함께 드렸던 저와 가장 많이 닮았던 우리 언니는 지난 2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자꾸 자꾸 흐릅니다. 많이 호전되었던 지병이 감기로 인해 폐렴으로 입원한지 한 달 만에 모두에게 아쉬움과 슬픔만 남기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힘겹게 산소호흡기 하나에

매달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 한마디 못 한 채..... 아직 마음 한구석을 도려낸 듯 텅 비어 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대신하여 저를 결혼시키고 형부가 먼저 떠나신 후 계속 저희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시면서 어찌면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준 언니였었는데..... 집안 구석구석 베란다의 화분이며 주방의 그릇들이며 언니의 손길이 묻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언니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게 있어 어머니요, 친구요, 너무 좋은 삶의 동반자, 믿음의 멘토였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도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없어 당장 세탁기를 돌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 번도 걸레를 잡아 본 적이 없어 손빨래를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계절마다 옷장 정리, 입맛을 돋우는 음식들이며, 일이 많아 늦어져 미쳐 미장원에 들리지 못한 날에는 염색을 손수 해 주며 "흰 머리가 나한테만 나아지, 왜 너한테까지 날까?" 하며 사랑하는 동생한테 나는 흰 머리까지도 못마땅해 하던 언니는 제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낼 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지금보다 가슴이 더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세상을 살아온 연륜만큼이나 언니와의 이별의 아픔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아 밤마다 지금도 눈물로 잠을 설치곤 합니다. 아직 핸드폰에서 언니의 번호를 지워버릴 수도, 옷장에 들어있는 언니의 옷가지들을 제 손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언니를 제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지만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서서히 슬픔들이 점점 줄어들지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너무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순간순간 언니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어느 날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다 보면 손이 빨갛게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생전

처음 내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명 입에서는 바르게 말을 하는데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언어로 쏟아져 나옴을 느끼면서 방언은사를 주신 주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입관식을 하는 순간에도 너무 편안하게 잠자듯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써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긴 언니의 영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보다 훨씬 젊고 예쁘고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언니를 보면서 이제 영이 떠난 육체에 연연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간 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원에서 운명의 날까지 딱 한 달 어찌면 그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강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보내주신 따스한 기도의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집사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

언니가 운명하기 하루 전, 언니를 위해 병문안을 오시기로 했는데 하루가 늦어져 생전에 언니를 못 본 것을 너무 죄송해 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송구했습니다. 먼 길 마다 않고 장례식장에 오셔서 고 정성자권사인 언니를 위해 기도와 예배로 마음을 다해주신 두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께 이제야 감사말씀 드리게 됨을 용서해주세요.

이제, 언니는 떠났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본향이 있기에 그 동안 받은 언니의 큰 사랑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며 천국에서 다시 “나의 언니” 로 만날 날을 소망해 봅니다.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가 아닌 "천국" 이라는 이름의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슬픔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 아니라 언니에 대한 그리움만 사진처럼 간직하며, 지금은 편안히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우리 언니를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의 짧은 이별이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 주님은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집사 손정 권

**처음** 회년 교회의 문턱을 넘었던 2002년도 말을 기억해 봅니다.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지금 나의 아내로 주영이의 엄마로 내 곁을 지켜주는 임영옥 집사를 따라 교회 구경을 왔던 때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청년부에서 찬양팀 활동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테이트도 체처두고 교회에 가서 찬양연습을 한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기다리기 지쳐 교회에 연습하

는 모습 구경 좀 하자고 갔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성화로 다녔던 어렸을 적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피아노 음악에 맞추어 성경책 뒤쪽에 있는 찬송가나 연습하러니' 하고 연습 구경을 하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찬양팀의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이더군요. 당시 찬양인도자였던 정세호 선교사는 기타를 치며 가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좌우로는 청년들이 드럼, 신디사이저, 한쪽에는 베이스 기타와 일렉기타를 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당시 여자 친구였던 임영옥 집사가 그 가운데서 감흥에

젖어 울동과 함께 찬양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청년부의 찬양팀은 훌륭한 찬양 인도자와 재능 있는 세션, 싱어들로 상당히 훌륭했었지요. 무슨 교회가 저런 세상 밴드들과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하나 하는 충격에 한참을 멍해 있었던 것을 기억 합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금요 기도회의 찬양인도에서 처음 접하는 찬양에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어색한 표정과 불편하신 표정들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만큼이나 저에게 다가온 처음 접한 찬양의 모습은 어색함과 낯설음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찬양인도자로 주님을 섬기는 저의 모습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찬양은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찬양 인도중 찬양의 힘에 대해 간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찬양 인도자에게 깊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제가 임영옥 집사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고 찬양팀 활동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다 이야기 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며 제가 깨달아 가고 놀라워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역도 그 어떠한 사역자도 주님께서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니, 이제야 내가 왜 중고등부에 찬양팀을 이끌었어야 하는지, 또 왜 내가 그렇게 멀리 돌아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전부"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곡의 멜로디가 아주 좋기도 하지만, 그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에 목이 메곤 합니다. 아래 그 가사를 적어 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 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찬양인도자로 택하셨을까?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나를.....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서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 생각해 보니 사람들 앞에 서는 찬양인도자는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찬양도 잘 해야 하고, 영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에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 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주님의 응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자로 남들이 버린 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죄 많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찬양 인도자로 설 때나 혼자서 찬양연습을 할 때도, 회중가운데서 그리고 연습실 한 칸에서 조용히 저의 찬양을 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눈물 흘리는 저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클래식 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며 클래식 기타를 오랜 시간 쳐왔던 터라, 어쿠스틱 기타를 "판따라" 라는 표현을 써가며 무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연습을 하다 보니 쉬운 악기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쳤던 경력은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임영옥 집사가 없었더라면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올 일도 찬양팀을 알게 될 일도 없었겠지요. 저의 영을 살린 이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겐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임영옥 집사를 따라 교회를 온 후 찬양팀을 하게 된 이유는 임영옥 집사가 찬양팀을 하고 있어서 였습니다. 찬양팀에서는 환영해 주었고, 고맙게도 찬양뿐 아니라 말씀 그리고 영적인 도움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다행히 잘 양육된 선배들을 통해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1년여를 찬양팀에서 이렇다 할 역할 없이 활동을 하다가 임집사와 헤어지는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을 못 보니 시간이 많이 남더군요. 이런저런 핑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회사에 남아서 찬양을 하며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2시간을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목이 쇠곤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제 찬양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그 때 주님을 찬양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전 찬양팀의 헬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몇 년 후 임영옥 집사와 다시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를 떠나고 나니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이정근 목사님의 권고로 중고등부 찬양인도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중고등부 찬양인도를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 봅니다. 3년 전 예배당이 없어서 노인복지 회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지요. 당시에 저와 임영옥 집사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며, '뭐하는 거야?' 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당시 청년부에서는 그런 회중들을 가르쳐 "좀비" 라는 별칭으로 불렸었습니다.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모습처럼 무표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회중!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은 뭐 예배를 위한 분위기 전환 시간쯤으로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찬양인도자라면 누구나 느꼈겠지만, 높은 벽앞에서 혼자서 '벽아, 무너져라'고 찬양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걸 계속 해야 하나'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찬양인도 하는 제 마음이 가장 갈급할 때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많이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상 일 년이면 해외 출장을 6~8회 정도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말 스케줄이 있는 주간은 꼭 빠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 쉬었으면 했지만 여태껏 단 한 번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찬양을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던 때, 자적처럼 아이들의 입술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잘 몰라도 입을 열고 따라 해보고, 선생님들은 더 소리 높여 찬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양성민, 김희락, 김경심,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들도 변해 갔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서 발표 주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인도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언젠가는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찬양인도를 해보고 싶다' 라는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 행사가 있던 날 악기, 싱어를 포함한 10명의 아이들과 찬양인도를 하면서 벽찬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3년의 고생에 대한 응답이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어 주시는구나. 10명의 아이들을 모두 채워주셨구나.' 한 코너 한 코너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때론 어설피기도 때론 프로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이번 문화의 날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선생님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때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헌신 했던 것보다 몇 배 또는 몇 십 배 더 크게 나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귀하게 써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서지 않고 늘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부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홀로 찬양 받으실 주님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김수지(확신반31기)

저는 미술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저에게 고입 준비생 3명을 지도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입시생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고민하던 중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하면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면 수상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술을 전공하려는 이 아이들이 첫 디딤돌을 잘 던져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첫 감사가 터지자 그 이후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도, 3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온 일도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상처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고 아이들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걸 들어주신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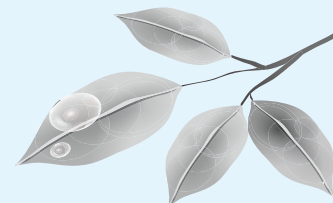
3명 모두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생각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힘들 때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확신반 교육을 받고 요즈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창세기 21장 22절)*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생활을 더 열심히 하여 주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토 픽 TOPIC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  
·  
·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항주에서 소주 오는 길에

권사 조난옥

**벌써** 오래전 일인데 마치 얼마 전 일 같다. 우리 부부가 중국 소주에 살면서 있었던 일이다. 딸은 한 학기 먼저 항주에 있는 절강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마침 졸업하게 되어 소주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잠시 지내려던 참이다. 몇 번 항주와 소주를 오가며 기숙사에 있는 짐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남은 짐이 좀 있다고 해서 나도 항주도 가볼 겸 같이 길을 나섰다. 항주의 아름다운 서호를 거닐 때까지는 좋았다.

이튿날이다. 그날 저녁 7시 막차로 돌아간다가에 기숙사에서 짐을 싸게 되었다. 항주와 소주거리는 버스로 불과 1시간 거리였다. 저녁이니 굳이 화장할 필요도 없고 차만 타면 가겠거니 하고 올망졸망한 짐들을 챙기는데, 나는 딸애가 먹다 남은 쌀이며 간장 등 이런 것 까지 딸 몰래 짐 밑바닥에 넣었다. 이것저것 싸다보니 짐이 꽤 무겁고 많아졌다. 딸은 베란다에 있는 농구공, 축구공과 다른 공까지 합해 공 3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굳이 가방 끝에 매다는 것이다.



그 때는 구정 연휴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남겨두고 막차 버스를 타러 갈 때부터 웬지 불안스러웠다.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려 짐을 땅에 내려놓고 나는 짐을 보고 있는 딸애는

표를 끊으러 터미널에 다녀왔는데 막차를 놓쳤다는 것이다.

(마침 구정 끝이라 여느 때와 다를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기숙사에는 이미 열쇠를 반납하였고 나선 김에 소주 집으로 가야 할 텐데…….

여유 없이 나선 딸에게만 역정을 내면서 그 많은 짐을 추슬러 이번엔 기차역으로 가게 되었다. 딸이 기차표를 끊으러 가고 나는 역전에서 파는 청옷감으로 만든 큰 배낭을 사서 작은 짐들을 몰아넣었다. 그렇게 했어도 보따리는 여전히 많았지만 공 세개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기차표는 끊어왔는데 밤 12시 차였다. 우리는 짐을 맡기고 몇 시간을 보낼 싸구려 여인숙엘 들어갔다. 항주가 잘 사는 도시이긴 하지만 싸구려 여인숙이고 보니 몹시 습하고 추웠다. 침대는 두 개나 있었지만 우리 모녀는 미우면서도 꼭 붙어 안고 오들오들 떨며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내내 딸을 꾸짖어 가며 훈계했다. 막차는 다시는 타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마침 TV로 즐겨보던 테니스 중계시간인데 그나마 아무리 기다려도 방영하지 않더니 여관을 나올 무렵에야 시작하였다. 소주에서 기다릴 아빠에게 공중전화를 하러간 딸이 또 오지 않으니 나는 외지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었다. 통화는 못한 모양이었다. 당시 우리 식구는 휴대폰 없이 살았다.

시간이 되어 짐을 메고 역에 들어가니 차표를 끊기 위해 줄을 길게 선 사람들로 역내는 혼잡해 있었다.

나는 딸과 같은 줄에 서지 않고 옆줄에서 표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례가 되어 여자 역원에게 차표를 내밀었더니 그 여자는 내 차표가 구겨졌다고



차표를 땅바닥에 뺨 던지면서, 너 이 표 어디서 샀느냐고 쫓소리를 하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놀란 나는 딸을 부르면서 소리쳤다. 입구로 들어가려던 딸이 돌아와 설명을 하니 겨우 주워서 다시 보고 들여보내 주는 것이었다. 암표를 산 줄 오해한 모양이다. 하마터면 그 밤에 그 기차도 못 탈 뻔 했던 것이 아찔했다.

기차안은 대만원이었다. 한국에서도 그런 기차는 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들은 짐들을 바닥에까지 부러놓아 발 디딜 틈도 없고 똑바로 서 있기조차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기차표는 입석표라니…….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면서 공까지 달고 온 딸을 나무라고 딸은 썩이며 간장까지 갖고 왔다고 어머니께 무어라 했다.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나는 저절로 딸을 나무라고 야단치게 되었다.

그런데 점입가경이요, 갈수록 태산이랄까. 한 시간이 넘어 소주에 웬만큼 다가올텐데 이곳이 어디쯤인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니 곧 상해라는 것이다. 놀라서 알아보니 기차는 다른 데를 거쳐 소주는 내일 아침에나 당도한다는 것이다. 새로 사 입은 검은 외투는 사람에게 끌리고 짐에 끌려서 허연 것들이 온통 박혀 엉망이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딸이 날 쿡 찌르며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픽 웃으며 신장에서 왔다고 했다. 주로 중국 사람들이 나를 신장에서 왔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말을 잘 못하고 생김이 조금 다르니까 중국 먼 끝에 붙어있는 소수민족쯤으로 보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생은 끝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보냈지만 안 해도 될 고생 그 밤 너무 힘들었고 소주 역에 내리니 아침 7시였다.

남편은 걱정 끝에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다며 그날 밤 마감인 논문을 우릴 기다리며 다 완성해서 보냈다고 했다. 여유 있게 다니지 못하는 불찰을 하나님께서 된통 가르쳐 주시려고 그날 밤 우리에게 밤새도록 혼내주셨는데 깨닫기는 했는지 원?

딸애는 내가 가끔 그때 애길하면 소리 없이 웃는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 없었던 것보단 그런 경험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다.



## 사랑하는 나의 딸 민영에게

집사 박인숙

**지난** 겨울 무던히도 추웠던 날씨가 따스한 봄 햇볕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길가에 노란 개나리꽃은 봄을 마음껏 누리며 환하게 미소짓고 있구나.

그동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오늘도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은혜받아 새봄의 새싹과 같이 내 영이 기쁨으로 벱차오른다. 특별히 하늘아버지의 인도로 네 남편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모처럼 같이 앉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니 더욱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 이에 더한 것은 지난 토요일 4월 22일 성령수양회를 좋은 장소에서 가졌는데 참석한 게스트와 스태프 모두가 성령께서 임하시므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므로 더욱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민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 남을 섬기며 온전히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만 때로는 세속에 물들고 사단이 우리를 간섭하며 넘어뜨리려 하는지..... 감사하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붙들려 하지만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편안 곳에 자리잡으려고 하니 상처투성이구나.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에서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결점과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셔 버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칭찬받을 일도 있다고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한 농부가 가꾸는 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먼 길에서 물통을 어깨에 메고 올 때 한쪽 물통은 온전하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데, 한쪽 물통은 금이 가고 흠집이 있어 밭에 와 보면 물이 반도 남지 않았단다.

그래서 흠집이 있는 물통이 주인에게 "주인님 나는 흠집이 있어 주인님의 뜻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버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주인은 밝은 미소를 띠며 "그래 너의 흠집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흠집을 알기 때문에 길가에 예쁜 꽃들을 심어 너를 사용하였지." 하며 엄려 말라고 위로하셨다는 내용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이 많았다.

'그렇구나 우리도 이런 흠집있는 물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구나'

그래서 오늘도 알파사역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게스트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한정된 돈으로 풍성한 식탁을 꾸밀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한다.

사랑하는 딸 민영.

먼 곳 캐나다에서 사니 자주 볼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기도하고 영적인 교류가 날마다 더하길 바라며 이만 줄인다.

## 잠 잘 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원로장로 양희천

**감사하게도** 매월 『맥체인식 성경읽기표』를 받아 2005년에는 '개역'으로, 2006년에는 '표준새번역'으로 대조, 통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시편 127장 2절의 후반부를 대조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개역개정),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새번역),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공동번역)로 풀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외국어 번역도 참조해 보았다.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NIV), "For He gives to His beloved even in his sleep"(NASB),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고 있을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일본어 번역)

종합해 보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이다. 지치고 피곤해도 한잠 잘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솟고 살맛이 난다. 반면에 잠을 설치면 심신이 고단해지고, 불면증이 오래가면 인생이 괴롭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127개의 지방)을 마음대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다스릴 수 없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첨단과학기술과 최고의



물질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 사람들도 산업화와 정보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이 수없이 많다. 또한 수면을 돕기 위해 200종이 넘는 약이 개발되어 미국에서만 연간 백 파운드(약 450톤)가 넘게 소비되고 있지만, 오히려 평안한 잠을 얻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사람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성취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시편 127:1-2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다. 사람이 집을 짓고 성을 쌓아 안락과 안전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등을 지향하며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보장이 없으면 무의미해지고 만다.

"하나님처럼 되어 보라" 는 악마의 꾀에 빠져 낙원에서 쫓겨 난 아담과 그 후예들은 누구나 수고하며 무거운 짐(마 11:28)에 짓눌려 있기에, 모든 짐을 대신 저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 품안에 안겨야만 한다. 시편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슬픔, 고통, 낙망을 호소하는 탄식의 시가 훨씬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식에게 배반당해 도망 다니며 억울하고 분하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3:5)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참 행복자였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단잠을 잘 수 있는 첩경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연초에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주사로 유도된 수면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자는 동안에도 신묘막측한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여러 장기의 질서를 위한 정상적 대사작용으로 항상성(homoeostosis)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신"(시 139:13) 주님께 자고 깰 때마다 감사드리며 살고 있다.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님"(롬 4:25)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굳은 신뢰로 우리가 난리 통에서도 숙면(熟眠)할 수 있고 무덤 속에서도 장면(長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희년가족들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시 121:3-4) 하나님의 품에 안겨 밤마다 편히 잠드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 돌체 쥬까 (Dolce Zucca)

성도 이경 란

가는 길을 확인하고자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처음 출발선에서의 소망일 뿐이었다  
으깨지고 나동그라지는 속에서도  
인생의 참맛을 엮어내는 것은  
일류 요리사만이 가질 수 있는 숨은 비법이 있는 게다

형크러진 파스타와  
무너진 독처럼 대책없이  
주저앉은 옆구리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무슨 정도(正道) 따윈 있지 않았다  
오로지 달려갈  
인생의 정석마저도 살필 수 없었다  
오!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手)이여

그래도  
그럴수록 더욱 미감을 사로잡는 만족이  
입안 가득한 파스타 속에서  
요물조물 새어 나온다

우리 인생의 절대주권을 붙들고 계신  
조물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도 파스타가 되자  
소스와 함께 형클어지고  
인생의 맛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동그라지고 포옥 익어  
단호박처럼 되어보자  
뭉게질수록 더 잘 익은 돌체 쥬까가 되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 수선스런 인생을  
포기하지 말자  
그 분의 절대주권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  
\* 돌체 쥬까 (Dolce Zucca)-단호박 위에 파스타를 얹은 스파게티

##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정석곤

**퇴근길에**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들렀다가 바로 집으로 왔다. 퇴근 때마다 집 앞 도로에는 차들이 즐비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시장터 건물 동쪽 주민편의 주차공간에 겨우 비집고 들어가 주차를 해놓았다.



KBS TV 저녁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했다. 66세인 남자회사원이 본선에서 아홉 문제 중 여섯 번째 문제를 실패했다. 동병상련이라고 젊은이 넷과 겨루어 이긴 그 분이 대견스럽게 보였다. 나도 힘들여 쓴 글을 고치다 꿈나라 여행을 떠났다. 아내가 방에 들어와 불을 끈 지도 모른 채 신나게 꿈나라 여행을 했다.

지금은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이다. 청아한 노랫가락이 끈질기게 울려 퍼졌다. 핸드폰의 모닝콜은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찾아와 노래를 불러준다. 좀 더 자자고 몽그적거리다 쿵쿨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다. 늦을세라 서둘러 내가 먼저 차를 탔다. 여느 때처럼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오른 쪽 자리에 길쭉하고 얇은 푸르스름한 모양의 물건이 보이는 게 아닌가? 내 눈은 갑자기 토끼눈마냥 동그아졌다. 오른쪽 차창 유리가 완전히 깨져 큰 조각은 옆 의자에, 작은 조각은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다. 또 아주 작은 조각들은 옆 의자와 그 밑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박살난 가루는 운전석 의자와 뒤쪽 의자,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차 안의 라이트를 켜봤다. 운전석 옆 트렁크가 열렸다.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서를 보관한 비닐 케이스가 그대로 있었다. 네비게이션도 있었다. 불평의 화살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날을 향해 겨누어졌다. 그리고 평소에 잘 풀리지 않던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원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도 모르게 큰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언' 가운데 제 1언과 같은 기도를 한 것이다. 작은 용서가 담긴 사랑의 손을 내가 먼저 내미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진안군 상전에서 근무할 때였다. 학교 본관 앞 운동장에 주차한 새 차의 앞 유리가 아주 작은 돌맹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적이 있었다. 가해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앞 유리가 무너져 내리려는 차를 전주 팔복동까지 끌고 갔다. 그때는 치밀어 오르는 적개심을 가시 돌친 말로 풀어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20여 년간 전주시 덕진동 들사평 마을에 살고 있다. 마을 도로가 낮에는 외부인들의 주차장이 되고, 밤에야 겨우 동네사람들의 뚝이 된다. 첫 운전을 한 1990년 4월 19일부터 길가에 주차를 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기껏해야 승용차 프레스토의 덮개를 벗겨 가거나, 몇 년 뒤 엘란트라 한 쪽 백미러를 다른 차의 부주의로 부러뜨리고 도망친 정도였다.

교회를 갈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 교회차가 머리에 떠올랐다. 막 뛰었다. 차를 타는 곳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는데 우측에서 불빛이 비쳤다. 노란



교회자동차였다. 있는 힘껏 달리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냥 지나갔다. 아내도 뛰면서 따라왔다. 차 우측에서 약간 비켜서서 손을 흔들며 뒤따라 달렸다. 아내도 더 힘껏 달려왔다. 다행히 덕진 종합경기장 수영장 옆에 C권사님이 서 있었다. 더 힘껏 손을 흔들며 달려가 차를 탔다. 씩씩거리며 뛰어오는 아내도 탔다.

기도회 시간의 찬양도, 특송도, 설교 말씀도 거의 반사되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다. 개인 기도시간이었다. 눈을 감아도 차만 보이고 내 머리 속에는 깨진 유리창만 그려질 뿐이었다. 돌아가는 교회의 차 시간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었다. 오는 차 속에서도 대화를 하지만 오직 깨진 유리창 생각뿐이었다.

곧장 덕진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차가 현장으로 왔다. 그때 이웃에 사는 H집사님도 작년 추석 때 누군가 차창을 깨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했다. 틀림없이 작은 절도범의 소행일 거라는 짐작이 들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의 사진을 찍으며 수사에 필요한 질문을 했다. 사건진술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 TV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경찰 앞에 앉아 기다리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나니 7시가 다 되었다. 꼭 잘못을 저질러 조서를 받는 것 같았다. 내 차 안을 다시 보았다. 운전석 옆 의자 위에 책은 있는데 접어놓은 녹색 종이팩 두 개가 안 보였다.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만 같았다. 용서하려면 내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고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렇지만 신고를 한 뒤 지구대가 앞으로 이런 우범지역에 대한 관심과 순찰을 늘린다면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내 차의 멘토는 단골 K공업사 사장님이다. 아침 일찍 사장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은 편찮으시면서도 일어나 사고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차 유리를 끼우는 상사를 소개해 주었다. 출근 시간을 조금 앞당기려 서둘러 그 상사를 찾아갔다. 마침 첫 손님을 맞이하려 기다리고 있어 빨리 유리를 끼웠다. 차 안을 보니 교회요람이 안 보였다. 수리비를 다른 이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무척 아까웠다.

한 시간 남짓 늦은 출근 시간이었어서 그런지 차들이 듬성듬성 지나갔다. 밤새 벌어진 일을 다시 그려 보며 달렸다. 내 차창을 깨뜨린 이는 누굴까? 그를 향한 저주의 분노가 주머니 속의 송곳마냥 비집고 나오려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잡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가 새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2011. 4. 12

※ 사순절(Lent, 四旬節): '40일간의 기념일' 이란 뜻으로 '수난절' 이라고도 한다.

부활주일(금년 4월 24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항상 성회수요일(금년 3월 9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 6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

※ 십자가상의 7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최후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 제1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

집사 박재영



**대학에** 가면서부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늦어도 9시까지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주일학교가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잠깐하고, 낮 예배가 시작되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가 되면 학생부 예배에 교사로서 참석했지요. 그런 다음에는 저녁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른 찬양 팀원들과 악기도 맞춰보고 연습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찬양을 인도하며 저녁 예배를 열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친 후 악기를 정리하고 교회를 나서면 밤 9시가 거의 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보니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늘 졸았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당대 최고의 자장가가 되어 내 귓가로 흘러 들어왔죠.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해도, 왜 그리 눈꺼풀이 내려오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연신 고개를 꾸벅거리며 목사님 말씀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다 보면 금세 예배가

끝나죠.

그 시절에는 주일이 가장 바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게 그리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웬만한 전도사보다 훨씬 낫다고 치켜세우시곤 했으니까요. 집사님들도 침을 튀기며 입이 마르도록 저를 칭찬했지요. 물론 저도 그런 칭찬에 무척 흡족해 하고 있었지요. 교회에 가면 어깨를 펴고 제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해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을 아름다운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한번쯤 빠져드는 유흥과 낭만, 방탕한 생활에 합류하여 시류를 따라 헤매기도 하고 제정신 못 차리고 떠돌아다니기도 했지요. 교회에 가면 전도사요, 교회 밖에서는 방랑자였다고나 할까요?

시간이 흘러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 선교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국제학생모임>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선교사 몇 분이 지도를 했지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모임 리더로 세웠답니다. 리더는 반드시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했지요. 굳이 자신이 리더라고 뽐내지 않아도, 그 모임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학생 리더의 모습이 참 멋져 보이더군요. 저도 리더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은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대만 학생이 저에게 와서 묻네요.  
"구원에 확신이 있니?"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어쩔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의 바람을 알았던 걸까요? 그 모임의 리더로 제가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리더십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에 나가는 게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저는 모임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대만 학생이 나에게 물어 왔습니다.

"재영, 너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리더로 활동을 하니?"

나는 그에게 확답을 하지 못하고,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며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국으로 갔지요. 나는 그곳에 가면 당연히 다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더십 미팅이 있다고 하기에 거리낌 없이 참석했는데, 모임의 디렉터(director)였던 댄 목사님이 저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시대요. 내가 합류하는 것을 다시 다른 리더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의 기대와 달리 대답하시던 댄 목사님이 알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학생이었던 생은 자국에 다녀 온 후에도 바로 리더십 팀에 합류하여 활동했던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뿌루통한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지요.

집으로 돌아와 댄 목사님께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내가 다시 리더십 팀의 협의를 거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생은 협의 없이 합류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왜 댄 목사님은 독선적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는지 등등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질문과 불평으로 가득 채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댄 목사님이 나에게 사과하면서 간곡히 이해를 구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회신이 오질 않대요. 저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영, 메일로 설명할 수 없으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이메일이었습니다. 결국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당시조차도 나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댄 목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하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요. 내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코 알지 못했던 점들을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직함을 갖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직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내가 리더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시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리더를 안 시켜준다고 떼를 쓰는 내 모습에 댄 목사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낮이

뜨겁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하루 종일 교회에 살면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구. 근데 요즘은 좀 쉬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과거의 활동은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지요.

셋째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꼭 장땡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일하지 말고 당신 앞에 앉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교회 일에 지쳐서 예배 중에 졸고 있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면서 말입니다.

직업이 선생인지라 가능하면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글 말미는 다시 잔소리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도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이니 이해해 주세요.

## 내 마음의 리모델링

장로 윤효숙

'구구 팔팔 이삼 사(死)' 몇 년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우스개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살까? 생각했었다.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삶은 살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 해 육십을 넘긴 나에겐 구십 구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삼일 아프다가 죽는다는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우스개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실제 나의 어머니가 팔십일 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여행도 잘 다니신다. 이런 나의 어머니가 몇 년 만 사시다가 세상을 뜬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구십 몇 세까지는 사셔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구십구 세까지도 무난히 사실 것 같다.

요즈음 시대는 리모델링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성싶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는 말에서부터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 뿐이겠는가? 우리 몸의 리모델링도 시작되었다.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눈꼬리가 처지게 되어 눈물이 나고 짓물러 눈꼬리를 올리는 수술을 많이 한다.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한다. 다리 연골이 닳아지면 무릎수술을 하고 장기가 좋지 않으면 장기 수술도 한다. 이빨을 다시 심는 작업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거의 노인세계로 들어가는 통관절차수준이다.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젊은이들도 이가 좋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이는 노안수술을 위해 오백만원이라는 큰돈도 아끼지 않는다. 수술을 해서 좀더 보람 있고 편리한 삶을 산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화제의 주제는 대부분 건강에 대한 것이다. '무엇이 어디에 좋다더라.' 하면 바로 자신에게 일반화 시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몸의 잘못된 곳은 다 고치고, 좋다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겠는가? 어른들이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쓰면서 '나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다' 는 말을 하신다.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젊은 층에서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저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세 '센추리 클럽' 열 명에게 장수비결을 물으니 적게 먹고, 자주 웃고, 눕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찌개는 고등어, 무시래기 찬은 콩나물무침이 전부였단다. 식사량은 밥 두어 숟갈 정도이고, 자세는 꼳꼳하며, 발일을 즐긴다고 한다. 주로 채소를 먹으며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한다. 평생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백세 노인이 2004년 445명에서 올 2월말 현재 2,862명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는 거의 구백 살이 넘게 산 사람이 많았고,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노아도 965세까지 살았다고 나온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지구를 보호하는 대기층이 홍수로 빠져 나와 버렸다고 한다. 그때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 수명이 짧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연구해 볼직하다. 어찌되었건 노아시대 후에는 모세가 120세 까지 살았다는 것이 장수한 사람 정도로 나와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의과 대학교수는 인간이 무리하지만 앓고 건강관리만 잘 한다면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고 말했다. TV에 칠십 노장이 마라톤이나 심한 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의 모든 기관은 수명이 다하는 단계가 오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 부분이 고장 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운동도 나이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에 힘써서 그런지 차츰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거기에 따라 보험도 100세 보험을 많이 선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이 80세 까지 인데 그 이후에 아프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100세 보험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몸은 건강해졌는데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인 것 같다. 누가 할머니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도 어느 모임에서건 자신이 연장자라고 생각되면 은근히 대접받고 싶어 한다. 우리 또래들이 옛날 같으면 상(上)할머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일하기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퇴직자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느냐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은 발전 없이 그대로 죽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더욱 황금기로 살았다.' 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노인복지회관마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무언가 할 만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몸을 리모델링하여 젊게 살듯이 마음도 리모델링하여 봉사나 취미 활동,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 본받고 싶다. 100미터 달리기 선수는 100미터만 달리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1,000미터 선수는 1,000미터에 맞추어 자신의 힘을 조절하기 때문에 100미터는 거뜰히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데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건강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난 요즘 내 마음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지금부터 십년까지는 현역으로

직접 활동하고 싶다. 나이 들었다고 뒤로 빠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와 자기관리 그리고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구구팔팔 이삼사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남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과 보호하심이 있어야겠지만 말이다.

##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영향력있는 도구로 삼아 죄인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  
센추리클럽: 100세 이상 된 이들의 모임(중앙일보 4월 15일자 참조)





시편 19편 7-8절

“여호와와 그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와 그의 법은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와 그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 줍니다.”



## 편집후기

새봄이 새순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산과 들에 핀 꽃들과 지저귀는 새소리들이 겨우내 동면했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음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호의 주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평신도들을 보다 많이 모시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원고 모으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글재주가 없어 회년동산에 참여하기가 어렵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속에서 묻어나오는 영적체험은 하나님이 최고이듯 최고의 글이 된다. 표현이 서툴러도, 맞춤법이 조금 틀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통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 받은 대로만 적으면 된다.

올해는 회년교회에 새로운 획이 그어지는 해이다. 회년의 영적 지도자이신 강순홍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소리에 성령의 불길이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년교회를 휘어 감는 듯하다. 하나님의 장중한 서사시가 이번 11호에도 펼쳐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끄럼이 없었으면 좋겠다.

출판팀장 유수창

## 희년동산 발간에 협조해 주신 분들입니다.

### 곽은희피부과

원장 곽은희    전주 서신동 이마트 앞    전화 : 063) 272-3337

### 군산생활과학고실

대표 유수창    군산대학교    전화 : 063) 466-2154

### 그린래저스타운 귀농 영농조합

대표 주양애    <http://www.greengrass.kr>    전화 : 063) 262-0170

### 비사별 유치원

원장 정은숙    전주 우아동 3가 473-2    전화 : 063) 241-0504

### 수소연료전지 특성화대학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116호    전화 : 063) 270-3908

### 스토리미술학원

원장 전정란    전주 덕진구 호성동 1M빌딩 4층    전화 : 063) 241-8654

광고비는 '출판목적 헌금' 으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 희년동산 2011 VOL. 11

발행일 : 2011년 6월 5일

발행인 : 강순홍

지도장로 : 김경중

편집위원 : 김애란, 유동진, 유수지, 유수창, 이인순, 장혜숙  
전정란, 정수만, 조경옥, 한건옥(가나다순)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623-36

전화 : (063) 272-7838

팩스 : (063) 272-7285

홈페이지 : [www.hn.or.kr](http://www.hn.or.kr)

인쇄 : 카피랜드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1170번지 군산대학교 제2학생회관

전화 : (063) 468-4225

팩스 : (063) 468-4280



## 우리 희년교회가 선교하는 곳

- 국내선교 | 국내 미자립 교회 및 기관 13곳
- 해외선교 | 해외 선교사 및 기관 4곳
- 장학선교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 방송선교 | CBS 전북방송
- 드라마선교 | 극단 『포스』
- 출판선교 | 계간지 『희년동산』
- 군 선교 | 35사단 연린예배 (매월 마지막 주일)
- 소년원선교 | 소년원 열린예배 (매월 둘째 주일)
- 장애우선교 | 마음사랑병원 (매주 토요일)

## 우리 희년교회가 봉사하는 곳

- 사회봉사 | 결연가족 반찬 봉사 및 생활 지원
- 식사봉사 | 매 주일 희년교회 식당